

#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최경식 시장, 행안부 등 방문해 지역 역점사업 국비 지원 건의

남원시는 12일, 최경식 시장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을 방문해 과장과 관계자를 면담하고 시 역점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속적인 침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급한 정비사업의 △등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93.8억원)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115억원)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피력하고 2025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는 △생태관광지역 기반시설 조성(지리산 남원 예코촌 조성사업, 총사업비 120억원)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683.4억원)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총사업비 267억원) △남원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총사업비 70억원) 등에 대한 2025년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였다.

지리산 남원 예코촌 조성사업은 지난해 정령치 습지를 중심으로 지리산 권 최초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체험과 교육, 체류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이미 국비를 확보한 남원, 순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위해 폐열 이송관로 등 스마트팜 필요 시설 설치 사업이다.

남원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의 추진 동력확보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처 예산편성이 진행되는 5월 말까지 수시로 부처 방문을 추진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부처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기(5월) 이전 수시로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공략, 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등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이 12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을 방문해 과장과 관계자를 면담하고 시 역점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순창발효관광재단, 서울 언론사 기자들 대상 관광설명회 개최

### 순창군 관광분야 사업설명 등

순창군 출연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지난 11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서울에 소재한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개최했다.

중앙지 및 인터넷 매체 언론사 등 기자 20명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순창관광 분야 신규사업 설명, 순창발효관광재단 연간 행사계획 공유, 순창군 유치지원 사업, 순창장류축제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또한, 순창발효관광재단은 '2024 순창군 교육여행 자료집'을 배포하며, 순창군 주요 관광지, 순창발효테마파크 소개, 교육여행 지원사업 안내 등을 소개하며 순창발효관광재단과 언론 관계자 간의 우호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4월 중에 진행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순창 MAMA 투어, 순창 장 담그는 날 행사도 홍보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군 출연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11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서울에 소재한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개최했다.

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운숙 대표는 "이번 설명회는 순창 관광 발전의 큰 도약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순창 곳곳에 숨겨진 관광명소와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마케팅 활

성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 개최

### 이달 30~31일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막 올려 붕어섬 생태공원 입장료도 무료... 30일 개막식 축하 공연

임실군이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떠오른 '옥정호 출렁다리와 만나는 첫 번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2024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벚꽃축제는 옥정호 드라이브 길을 화려하게 장식할 벚꽃 나무들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옥정호, 물이 가득 차올라 스릴감을 더하는 출렁다리, 향긋한 봄꽃 내음으로 가득한 붕어섬 생태공원이 더해져 가장 아름다운 2024년 봄축제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벚꽃들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자, 벚꽃 개화 시기를 고려하여 축제 일정을 3월 말로 잡았다.

옥정호 출렁다리 앞에 특설행사를 설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축제 기간은 물론 3월 한 달간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입장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된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옥정호 드라이브길은 옥정호의 맑고 깨끗한 호수와 자옥한 물안개가 어우러져 더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봄이면 옥정호 순환도로 내 가득하게 피어있는 벚꽃 나무의 향연과 주변 숲이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연출하는 덕분에 벚꽃 명소로 단연 인기를 끌고 있다.



옥정호의 반짝이는 운수와 우뚝 솟은 출렁다리의 경관, 싱그러움 벚꽃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함께 체험·판매 부스와 포토존,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옥정호 담수어 그리기, 붕어와 벚꽃 모양 달고나 체험 등 옥정호에 특화된 맞춤형 체험 부스도 운영하여 어린이들도 옥정호와 붕어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30일 오후 3시에 개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축하공연에는 만능트롯돌 김희재, 천대만상 윤수현, 리틀 해니이 요요미, 뗏다뗏어 영기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개막을 축하하고, 상춘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플레이 남원 로드쇼' 진행

남원시는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관광객에게 남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스마트한 경험과 디지털 콘텐츠 즐길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환으로 남원시가 지난 11일부터 남원여고를 시작으로 '플레이 남원 로드쇼'를 2주간 남원지역 3개 고등학교와 전라권 5개 대학교에 찾아가는 일정으로, 11일 남원여고, 12~13일 원광대학교, 14~15일 전북대학교, 15일 남원국악예술고, 18일 전주대학교, 19~20일 조선대학교, 21~22일 전남대학교, 22일 남원서진여고에서 진행한다.

플레이 남원 로드쇼는 1020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웹툰과 SNS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통해 4월 카카오 페이지에 정식 연재하는 웹툰 '함단던'과 SNS 채널 'PLAY NOW', '남원 고을툰' 등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선보고, 채널 가입 이벤트를 통해 커피차의 음료와 캐릭터 굿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맞춤형 스마트

### 농업 보급사업 확대 추진

남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관내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상기상과 노동력 부족 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간편형 스마트팜 시설 지원을 통해 선진화된 기술보급 및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 청년농·귀농인 농업 경영에 필요한 초기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 원예농가의 안정적 영농 추진과 규모화 확대를 위한 ICT융합 확산사업, 농업인구 확대를 위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간편형 스마트팜 확대보급사업 등이 있다.

또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및 데이터수집 장비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농가는 약80농가로 규모는 395.737㎡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적이 많은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